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청년 큐티 나눔	금요일 오후 9시	Zoom
한민 말씀방	매일	카카오톡

#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주일 예배 봉사위원

	07. 24	07. 31	08. 07
대 표 기 도	김복자 권사	강희수 성도	정용현 집사
성 경 봉 독	김복자 권사	강희수 성도	정용현 집사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교회(히10:25)”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안내 : YouTube에서 „브레멘 한민교회“ 검색하세요.

교회소식

7월 축복인사 - 물 댄 동산과 같은 복의 사람이 되세요.(성도 간에)  
나는 물 댄 동산의 주인공이야!(자신에게)

1. 감사 - 말씀을 전해 주신 성주제 목사님(함부르크 순복음교회 담임)께 감사드립니다.
2. 담임목사 - 우크라이나 난민촌 방문(2일~20일, 폴란드, 헝가리, 몰도바, 루마니아)
3. 성도의 교제 - 여전도회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방학 중 고국을 방문하는 청년들은 담임목사나 청년 회장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

생일	윤석진 형제 강희수 자매
고국 방문	김새연 자매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 일 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합계(Euro)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조 영 재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http://www.brehanmin.de>

##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찬 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 정용현 안수집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 사도신경(새번역) .....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 38장 ..... **다같이**  
 기 도 Gebet ..... 노지민 성도  
 성경봉독 Predigttext ..... 창 37 : 19(구p57) ..... 노지민 성도  
 (1.Mose 37:19)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정용현 안수집사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 정용현 안수집사  
 설 교 Predigt ..... 꿈꾸는 자 ..... **성주제 목사**  
 \* 파송찬양 Abschlusslied ..... **선한 능력으로** ..... **다같이**  
 \* 축 도 Segnungsgebet ..... **성주제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김복자 권사

† 기도제목

1.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을 가지고 도전하게 하소서
2. 한민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학업과 생업에 기쁨 부어 주소서
3. 브레멘의 각 대학에 입학한 한국유학생들이 한민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4. 우크라이나와 세계 평화와 경제 안정을 위해
5. 김선택, 장보경(형가리)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 샘물 같은 나눔

활기 있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나누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복음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자신의 것을 베풀 줄 압니다. 베풀면 모자랄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많아지고 풍성해집니다.

지구촌을 돌아봐도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은 다른 나라에 재난이 닥칠 때 제일 먼저 뛰어가서 섬깁니다. 나누고 베풀어줍니다. 그래서 그 민족과 국민이 하나님의 풍요로운 복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반면 움켜쥐기만 하고 나눌 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풍요를 맛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저 붙잡고 움켜쥐고 쓰지 않으면 모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그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눅6:38)'

교회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 나누는 교회는 생명력이 넘칩니다. 은혜와 축복이 넘칩니다. 그러나 나누지 않는 교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성도들의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다. 샘은 계속해서 퍼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물이 솟아납니다. 샘이 고여 있으면 분명 얼마 못 가서 벌레와 세균이 들끓을 것입니다.

복음 전도 / 최홍준 목사  
(호산나교회 원로)

\* 사랑이 가는 곳에 생각과 호의도 따라간다. 우리 보화가 하늘에 있다면 마음도 하늘에 있다 - Fulgentius(중세 신학자) -